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3 면 에서 계속

군사학교 교원들은 단순한 붓대나 펜대가 아니라 군사교육혁명의 조타수들이며 군사교육혁명의 성과어부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학습과 수양, 지능발전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종하는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군사학교 학생들을 전적으로 교원들에게 맡긴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당은 군사학교 교원들이 군사교육혁명의 조타를 역세게 들어잡고 당을 따라 곧바로 나가며 모든 학생들을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충실하고 능력있는 군사인재로 키우는데서 부리와 밀거름이 될것을 바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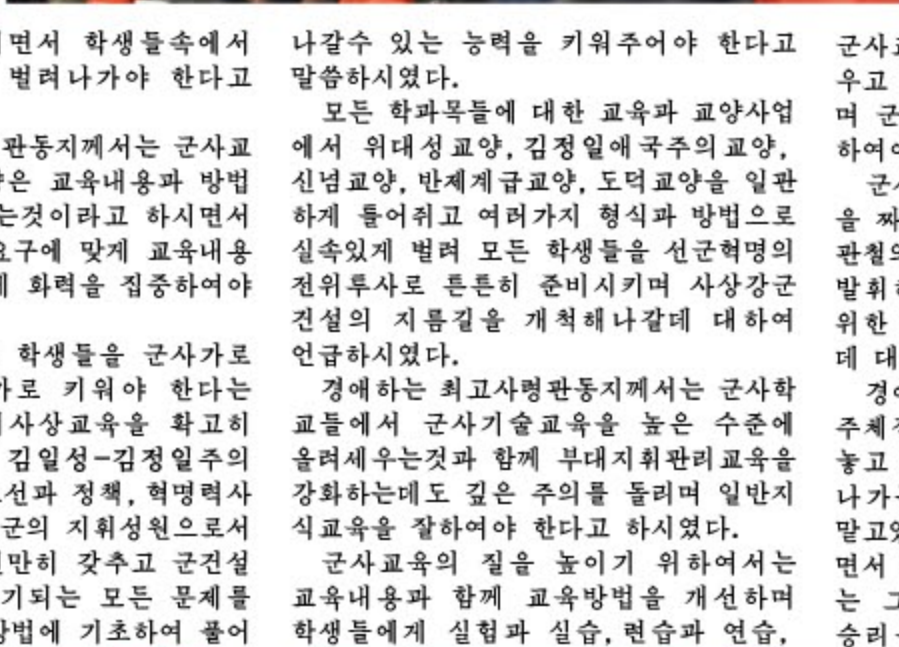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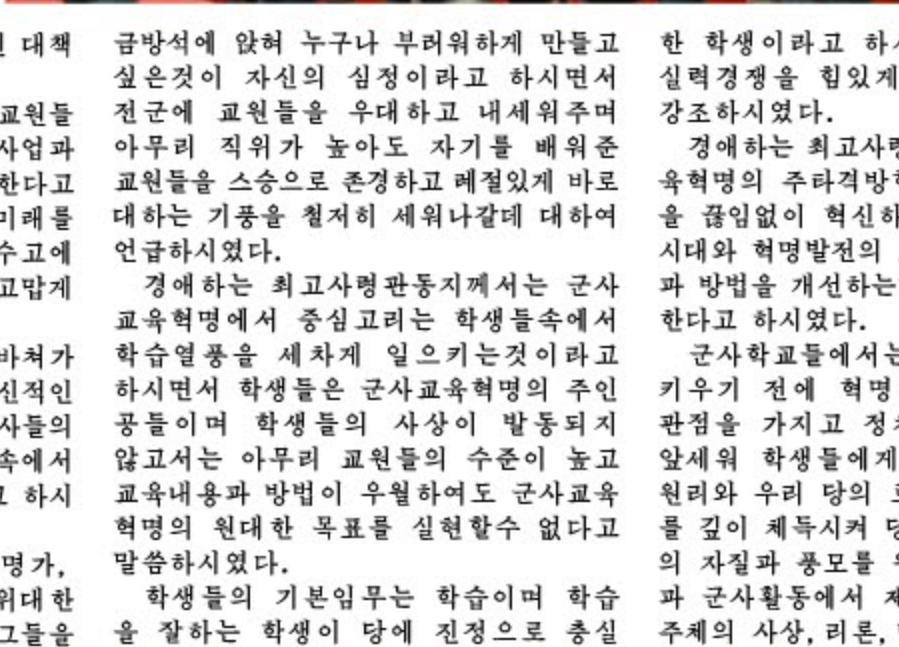
교원들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과학리론적자질과 교육실무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교단에서만 아니라 일상사업과 생활에서도 실천적모범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며 정치도덕적으로 수양되고 인간적으로 세련된 인격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교원대렬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 나가며 교원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고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데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교원들을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군사학교 교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잊지 않고있으며 언제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바쳐가는 교원들의 남모르는 땀방울과 헌신적인 노력은 결전의 언덕에 뿌려가는 용사들의 붉은 피처럼 고결하고 찬길 바다속에서 찾아낸 진주보석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였다.

군사학교 교원들을 직업적인 혁명가, 숨은 노력가로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그들을



참판과 답사를 많이 시켜 그들이 높은 실천능력을 소유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전반적군사교육을 과학적로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교육행정사업을 개선하고 학교관리운영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교육행정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강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과들에서 교수사업과 자질향상사업, 과학연구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기 위하여서는 강실과 훈련장, 과목연구실, 실험실습실들을 현대화하고 각종 교육기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고사포병군관학교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모든 군사학교들에서 강실과 침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꾸리고 식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며 학교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군사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사학교 당위원회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불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 놓고 불패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가는데서 군사교육일군들의 위치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에서 제일로 아끼고 믿고있는 그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앞날을 위하여 모두 건강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자 백두의 선군령장을 우리러러지는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장은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리러러 떠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군사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으로써 쇠소리가 나는 아전현의 지휘성원들, 다변종화, 단능화된 백두산혁명강군의 맹장들을 많이 키워내어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전백배로 다져나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새 세기 군사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는 군사교육사업에 쌓아 올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군사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갈 백두산혁명강군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대회합으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